

## 간호 이론의 발달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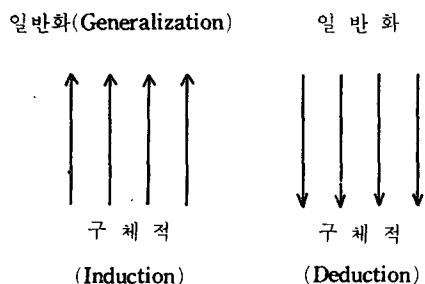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의숙

이론을 발달한다고 하면 대개는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내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현존하는 이론의 범위를 넓혀주거나, 몇 가지 이론을 통합시키는 것 또는 이론의 내용을 조정해주는 것도 이론발달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다.

### 1. 이론발달의 방법

이론을 발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귀납법(induction)이며 또 하나는 연역법(Deduction)이다. 일반적으로 Induction은 구체적인 사실에서부터 일반화시키는 방향으로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반대로 Deduction은 일반화된 사실에서 구체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2. 방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귀납법

##### ① Grounded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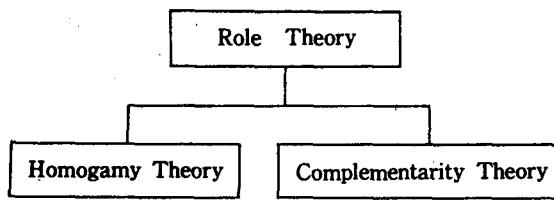
이 방법은 전혀 발달되지 못한 황무지에서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내는 방법으로 실존철학에서 사용하는 Phenomenological 방법과 거의 비슷하며 근래에 들어 사회학이나 간호학에서 권장을 받고 있다. 간호계에는 Glazer 와 Strauss에 의해서 소개되었는데 많은 각광을 받았으나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연구자의 우수한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많이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Grounded 방법은 가설이나 Theoretical Qromework이 없이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역법에서는 이미 체계화된 확고한 이론을 중심으로 기틀을 잡아 그 안에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시점을 만들고 있으나 Grounded 방법에서는 선입감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권장되고 있다. 즉 연구자 자신의 관념을 미리 어느 일정한 틀에 고정시켜 새로운 것을 보는 힘을 약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가능한한 자유로이 선입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어느 일정한 이론틀에 준하지 않으므로 가설이 없으며 따라서 변수(Vanaab)도 없다. 여기에서는 단지 무엇을 연구하고 싶다는, 무엇이 있을 것 같다는 Idea가 중요하다. 이 Idea에 시점을 두고 관련된 모든 상황을 가능한대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 Grounded 방법을 이용하여 정립된 이론의 한 예로 위기를 당한 인간의 심리단계 모델을 들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 위기에 접한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양상의 심리경험을 할 것이라는 Idea에서 Fink는 수많은 종류의 위기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분석하여 위기의 심리적 단계(Psychologic Phase of Crisic) 모델을 유도해 내었다. 임종기 환자의 Dying Process를 연구한 Ross도 이 Grounded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Fink의 위기 심리적 단계 모델과 거의 같은 행동양상을 보고하였다.

##### ② Codification

이 방법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일반화된 이론들을 한가지로 통합시켜 주는 것이다. 그 예로 배우자 선택 이론(Mate Selection Theory)을 들 수가 있다. 배우자 선택이론에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이론이 똑같이 중요하게 인정되어 있었다. 하나는 비슷한 사람끼리 주로 서로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Homogamy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상반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Complementarity Theory이었다. 이 두 가지 이론을 적절하게 묶어 한 쪽이 원하는 것을 다른 상대방이 열만큼 만족시켜주느냐는 정도에 따라 배우자 선택이 일어난다는 Role Theory가 정립되었다.



③ 몇가지 변수나 명제들을 종합하여 통합된 이론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즉 Hollingshead 의 거주지역, 직업, 교육정도의 세 가지 요인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는 Index 를 만들어 낸 것이 변수들을 통합하여 이론을 발전시킨 한 예이며, Holms 와 Rahe 의 SRSS 는 생활의 변화를 Check List 로 만들어 적절한 정수를 배당하여 스트레스 적용 계수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든 Index 로서 Stress 이론의 몇가지 명제들을 통합하여 발달된 한 예이다.

## 2. 연역법

① 다른 학문에서 이미 잘 정돈되어 있는 이론을 빌려 쓰는 법.

1970 년 Aldous 가 가족이론(Family Theory)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논할 때 처음으로 Identify 된 방법으로 다른 영역에서 이론의 명제를 빌려다가 새로운 영역에 응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개념(Concept)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명제(Proposition)를 빌려오는 것이며, 이 명제들은 특수한 것 보다는 일반적인 것이어야 연역이 가능하다.

예 : 의사와 간호원간의 갈등에 관하여 이론을 발달시키고자 할 때 동물행동과학 분야에서 명제를 빌려쓸 수 있다. 즉 영역본능(Teniforilalig) 이론에서, “동물을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 때문에 서로간에 싸우며, 그 싸움은 서로 힘이 비슷할수록 더욱 격렬하다”라는 명제를 빌려서 의사와 간호원간의 상호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즉 이 명제에서

제 1 의 Deduction :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도 영역본능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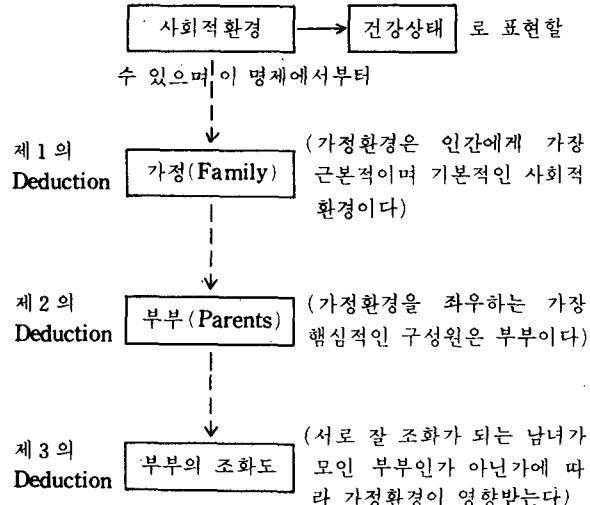
제 2 의 Deduction : 간호원과 의사의 힘(Power)이 비슷할수록 간호원과 의사간의 갈등이 더 심할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이 생겨날 수 있다.

② 같은 학문영역내에 있는 이론에서의 연역.

이미 자기분야에 존재해 있는 이론을 연역하여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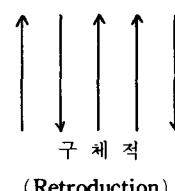
예 : 사회의학 분야에 있는 “사회적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명제가 포함하고 있는 두개의 개념 즉 “사회적 환경”과 “건강”은 범위가 넓은 것으로 여러가지 방향으로 뻗어갈 수 있다.

즉 이 명제는



즉 여기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회환경적 요소로서 “부부의 조화도”라는 것이 연역되었다. 이상과 같이 귀납법과 연역법의 두 가지 기본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사실상 이론을 발달하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를 Retroduction 또는 Abduction 에 방법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일반화 (Generalization)



## B. 이론의 활동

### 1. 간호활동의 근거

이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기능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보통 이론의 기능을 ① 사실의 묘사(Describe) ② 설명(explain) ③ 예측(Predict) 또는 ④ Control 의 4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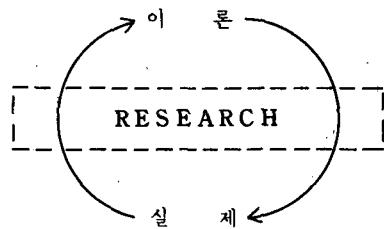
Dickoff 와 James 가 주장한 4가지 단계 이론에 관한 설명도 결국은 이 4가지 기능에 준하여 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첫번째 단계의 이론은 정의를 내리거나 종류 (Typology)를 알려주는 것으로 사실을 묘사해 주는 것이며, 두번째 단계는 두개 이상의 개념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세번째 단계는 이 상관관계에 시간의 개념을 첨가하여 X라는 사건이 있으면 Y가 따라온다는 것을 예측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넷째 단계는 원인과 결과를 알려 주는 이론이다. 어떠한 종류의 이론이든 이 네가지 기능중 적어도 한가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이론은 간호활동을 이해하거나 또는 결과를 예측하고 콘트롤할 수 있는 간호활동의 밑바탕이 된다. 예를 들면 첫단계 이론의 예로 앞의 Grounded 방법에서 소개한 위기상태에서의 인간의 심리단계를 들 수 있다. 즉 위기를 당한 사람들은 처음에 Shock 상태에 빠져 되어 전혀 아무것도 감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음에 공포와 무기력증이 오며, 그 후에 노여움이 따라오고, 계속하여 Depression 이 지난 후에 비로서 적응단계로 들어 간다는 이 '모델은 임상에서 환자나 그 기록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남편이 곧 사망할 것이라는 통고를 받은 보호자가 간호원에게 계속하여 노여움을 폭발하고 신경질적인 행동을 할 때 간호원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마음을 상하기에 앞서 이 보호자가 위기심리단계의 제 3 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알고, 이해하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설명단계 이론으로 예를 들수 있는 Moss의 Biosocial Resonance 모델은 어떻게 사회적 환경이 직접 인간의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여 주는 것으로, 간호원에게 그 경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따라서 간호조단을 위해 환자의 사회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도록 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예측단계이론의 예로는 앞에서 언급한 SRSS 모델을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개인이나 가정의 과거 6개월 또는 1년간의 일상생활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예측할 수 있어 간호원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Control 을 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보여 주는 이론은 간호원에게 무엇이 원인이 되는 것인지를 지시하여주므로 그 원인을 없애거나 변형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원인이 되는 요인을 첨가시켜줌으로서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간호활동의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느 종류의 이론이든 실제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제와의 사이에 거리가 있다던가 또는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

는 모순된 문제점이 자주 대두되고 그 결과로서 이론이 문제점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론이나 실제와 거리가 있는 이론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론은 실제에서부터 발전되는 것이며 또 발전된 이론은 실제에서 계속 검증되어 실제에 맞지 않는 이론개념은 계속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론과 실제의 사이를 연결짓게 하는 수단이 Research이며, 따라서 이론과 실제의 연결에 대한 문제점은 연구방법의 미숙이나 이론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의 측정화 (Operationalize)에 관한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론들을 실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을 발전시키고 측정방법을 발전시켜 수행되고 있는 간호활동 자료들을 정확한 이론으로 체계화시키고 또한 정립된 이론들은 계속적인 검증으로 조성되어 간호활동에 직접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 2. 간호의 과학화

이론이란 한마디로 하여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지식의 덩어리'라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랜 간호 역사 기간 동안 경험이나 실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호활동들이 제공한 산발적인 지식들은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이론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서 간호학은 비로서 정리가 되며, 또 과학이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간호제도 이제는 간호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간호활동의 역사로 흩어져 있는 자료는 무한히 많으며, 사회요구나 간호교육이 이미 기술적인 것 보다는 이론적이고, 석·박사 등 교육받은 간호원의 숫자의 급증으로 Research나 이론 발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졌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자료들을 귀납법을 이용하여 체계화하고, 규칙적인 양상을 발견하여 고유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또한 적절한 타 분야의 이론을 연역하여 간호에 맞는 이론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간호이론을 정립시키고 또 그 이론들에 근거한 간호활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서 과학적인 Profession으로 자부할 수 있으며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